

27

세레 요한의 외침

누가복음 1:8~25, 3:1~20, 요한복음 1:6~28



요한은 광야를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말씀 전파하며 외쳤습니다.

27

세레 요한의 외침

누가복음 1:8~25, 3:1~20, 요한복음 1:6~28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 이라 하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일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 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요한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석청 : 바위틈에서는 벌들이 모아놓은 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세례 요한의 외침

누가복음 1:8-25, 3:1-20, 요한복음 1:6-28

27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의 외침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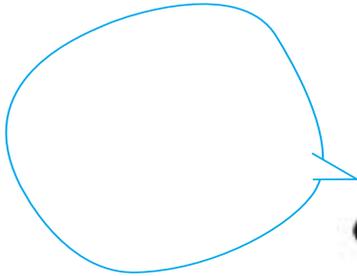


나는 무엇을 외칠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은 주위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외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크비 외치라 아까지 말라 (이사야 58:1)



나는 소리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 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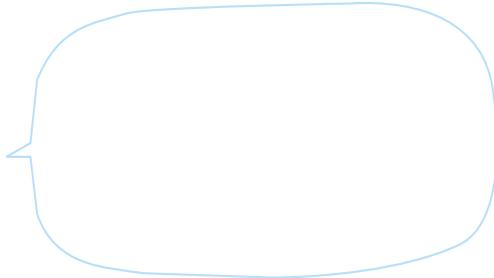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나요? 다음 보기처럼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보세요.

.....
.....
.....

너희 을 사람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예 화



원숭이의 꼭 짠 주먹

북아프리카의 사냥꾼은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구멍을 가진 상자에 과일을 가득 채워서 저녁 때 나뭇가지에 단단히 매어 놓는다. 밤중에 원숭이는 과일의 냄새를 맡고 그 상자를 찾아내 손을 넣어 과일을 한 움큼 질 것이다. 그러나 그 상자는 구멍이 너무 작아 과일을 쥔 손을 뺄 수 없다. 원숭이는 그 과일을 포기하면 손을 빼서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만큼 지각이 없으므로 밤새도록 주먹 쥔 손을 빼려고 잡아당기지만 할 것이다. 그러다가 아침이 오고 그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쉽사리 잡히는 것이다.



예 화



시베리아의 침례

나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한가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침례를 받는 것이다.”

겨울의 시베리아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나 외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당국의 엄한 경계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두꺼운 얼음을 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낮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반대 방향에 또 하나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호수로 갔습니다. 형제들이 두껍게 얼어 붙어 있는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고 장로 형제가 호수에 들어가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는 듯한 차가운 물 속에서 가슴까지 잠그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 형제는 코감기도 걸리지 않았고 20여 명 가운데 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베리아 불꽃』 중에서

부모님란

선생님란